

우리당 親盧 그룹 선택 기로

20여명 “당 사수냐, 신당 참여냐” 대선 변수 부상... 당분간 관망할 듯

지난 8일 결핵된 열린우리당 초·재선 의원 16명의 탈당에 이어 정대철 고문 그룹, 충청권 의원들의 집단탈당 등이 차례로 대기중인 가운데 친노그룹의 진로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친노 그룹의 열린우리당 사수 및 독자 대선 후보를 내세울 경우, 범여권이 차기 대선승리에 필요한 2%를 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선 정국의 또 다른 변수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오는 15일을 전후로 대통령과 성향 의원들의 탈당이 완료되면 열린우리당은 비례대표 23석을 포함, 40~50석 규모로 왜소해질 전망이다.

특히, 당 지도부가 비례대표 의원들을 제명 또는 출당 조치를 통해 자유롭게 만들어준다면 열린우리당은 20명 안팎의 친노 그룹만 남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대통령과 의원들이 표명상으로 친노 그룹의 합류에 드러내놓고 말하

고 있지는 않지만 내심으로는 은근히 거부 기류가 있다는 것. 여기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통합민주당 내부 기류는 친노 그룹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상황이다.

친노 그룹이 열린우리당에 남아 참여정부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친노그룹이 대통령에 참여한다면 ‘도로 우리당’이라는 색채가 강해지면서 차기 대선에도 약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범여권의 은연도 제되고 있다. 이 같은 범여권의 은연도 제되고 있다.

실제로 친노 그룹의 전략적인 백원우 의원은 “배가 침몰한다고 뛰어내리기보다는 배와 함께 최후를 준비하는 선장의 심정으로 당과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형주 의원은 “참여정부나 대통령을 부인

하는 식의 정통성을 따질 수 없는 통합 흐름에는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의 성과를 책임진다는 정치적 명분에도 밀리지 않는다. 최근 두 차례의 대선이 30만~50만표 차이에서 승부가 관가름났던 점에서 결속력이 강한 친노그룹이 차기 대선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계산도 친노그룹의 당 사수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친노그룹은 당을 사수하면서 나름대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을 거쳐 범여권의 국민경선제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경선제 진행에서 대통령에 합류하는 방법도 모색한다는 것이다.

당장 11일 신기남 전 의장이 출당기념회를 통해 대선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며 18일에는 계승을 조건으로 한 대통령 참여 입장을 밝히며 ‘열린우리당 사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김혁규, 이해찬, 한명숙 의원 등 친노 주자까지 탈당, 대통령 대열에 합류할 경우에는 열린우리당은 유시민 의원 등 ‘개혁당’ 출신 그룹과 일부 강경 친노세력을 중심으로 한 정당으로 자리매김되면서 범여권의 외연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

현장과 시각

중소기업 울리는 ‘신공공’



이종태
경제부 차장

정권이 바뀌면 대개 정책도 오락가락하게 마련이다. 중소기업 정책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정책이 바뀌면서 늘 골탕먹고 손해를 보는 쪽은 지역 중소기업이라는 데 적잖은 문제가 있다. 물론 수혜를 보는 쪽도 있지만 말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 벤처는 말 그대로 ‘잘 나가’ 장사였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벤처는 시들해지고, 기술혁신형 기업(이노비즈)이 ‘귀하신 몸’이 됐다. 정부의 장단에 맞춰 중소기업들이 이노비즈 인증을 받기 위해 부산을 떨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올 초 폐지된 단체수의계약제도만 해도 그렇다. 지난 1966년 시행된 이 제도는 공공기관이 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통해, 40여년 동안 중소기업들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려 양질의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막는다는 참여정부의 집중포화를 맞고 지난해 말 수명을 다하고 말았다.

어쨌거나,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로 애꿎은 지역기업들만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공사용자재 분리구매,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등을 골자로 하는 신공공구매제도가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대신하고 있으나, 지역기업들에게는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불만투성이다.

기자가 만난 광주지역 한 중소기업 사장 “신공공 때문에 수주물량이 급감해 구조조정에 나서서 업체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다. “그런데도 신공공 제도를 고집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언성을 높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역시 “신공공은 기술력이나 마케팅이 아닌 ‘마진경쟁’을 초래, 중소기업에 ‘제살 깎아먹기’ 현상을 만연하게 하고 있다”면서 “신공공구매제도가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제대로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모든 정책이 수익자 전체의 입맛을 맞출 수는 없다. 그러나 ‘일반의 성공’은 거뭇아 정책으로서 가능할 수 있다.

신공공구매제도의 경우 중소기업들의 기술이나 제품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지난해 전국의 거의 모든 중소기업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또 시행 1년을 넘기기도 전에 ‘출혈경쟁’을 유도하거나 대기업 또는 특정업체의 배를 불리기 위한 ‘불공정한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제도가 하루에도 수천개씩 ‘바람’을 내몰리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진정한 버팀목이라면, 불합리한 부분은 지금이라도 다시 뜯어고쳐야 한다.

일본이나 영국·독일이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지역물량 제한경쟁입찰, 소액물량 수의계약, 공공구매기관의 분리·분할발주 의무화 등을 도입하고 있는 까닭도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그 놈의 대통령 때문에 쪽팔려...”

심재철 의원 대정부질문 발언 논란...여·야 의원 고성 오가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11일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그 놈의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쪽팔린다”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심 의원은 “87년 헌법에서 얻어낸 5년 단임제가 뭐가 쪽팔린다고 하는냐”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따지듯이 묻자 한 총리는 “국제비교를 했을 때 5년 단임제가 선진국에서 적다는 것을 재미있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받아넘겼다. 이에 심 의원은 “그럼 저도 그런 표현을 써보겠다”면서 “그 놈의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참 쪽팔리네” 맞습니까. 제 표현이 어떻습니까”라고 응수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그 표현은 의원의 자유다. 저한테는 별로 재미있지 않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나 심 의원 발언 직후 의원석 곳곳에서 심 의원에 대한 성토가 터져 나오는데 분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의원들의 비난과 고성에 멈추질 않자, 심 의원은 의원들을 향해 “대통령이 막말할 때나 그렇게 따지라”고 쓰아붙였다.

심 의원은 이어 “선관위는 대통령의 재판을 심판하고,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심재철 의원의 발언에 대해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심 의원에게는 국회의원으로서는 기본적인 품위를 지키는 훈련이 필요하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통령을 비판한다고 하다가 본인의 행동이 비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중도개혁 대통령해 단일후보 선출”

민주당 최인기 부대표 국회 연설



민주당 최인기 부대표(나주·화순·사천)는 1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도개혁진영의 대통령해 단일후보’를 내세워 새로운 정권을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기 부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6월 항쟁 정신을 구현하는 정통성을 지닌 유일한 정치세력”이라며 “민주당과 통합신당의 신실 합당으로 탄생할 ‘중도통합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중도개혁진영의 대통령해 단일후보를 세우겠다”고 통합과 대선에 임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최인기 부대표는 이어 “노무현 정권은 6월 항쟁의 토대에서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탄생시킨 정권”이지만 “잘못된 이념과 무능하기 짝이없는 아마추어식 국정운영, 원칙도 기본도 없는 포퓰리즘으로 민주화 세력 전체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등 6월 항

쟁 정신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끝없는 정권의 실정과 대통령의 자아도취적인 모습을 여과없이 그려냈다고 해서 군사정권이 하던 것과 똑같이 언론을 옥죄고 있다”며 “6월 항쟁으로 쟁취한 언론자유는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구상’ 독자 창당 선언

최열씨등 각계인사 68명 참여 향후 범여권 구도재편 주목



‘통합과 변영을 위한 미래구상’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세력이 11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새로운 정당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최열 환경재단대표(가운데)와 안봉아 고려대 대학원생이 창당추진 제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통합과 변영을 위한 미래구상’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세력이 11일 창당을 선언하고, 정치세력화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이들 시민사회세력은 범여권 제 정과가 제3차 대선통합의 핵심 연대 대상으로 거론해온 그룹이어서 향후 범여권 구도 재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래구상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새로운 정당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롭게 하나로, 행복한 나라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창당 작업을 공식 선언했다.

창당 제안은 미래구상 공동대표인 최열 환경재단 대표를 비롯, 박오순(반호사) 양길승(녹색병원장), 이부영(서울시 교육위원), 이예지(한국여성장애인단체연합 전 상임대표), 정대하(상지대 교수), 최정순(웅진그룹 인재개발원장), 한명희(한국여성단체연합 전 공동대표)씨 등 시민사회 주요 인사와 각계 전문가 68명이 참여했다.

최 열 공동대표는 창당제언문을 통해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정치를 바꿀 권리

가 국민에게 있다”면서 “21세기의 대한민국을 창조할 새로운 틀과 정치세력이 필요하다. 비전과 정책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7월1일 창당 발기인대회를 갖고 7월 하순에 중앙당을 창당한다는 로드맵도 발표했다. 국민공모 방식으로 당명을 정하고, 정책토론회, 민생현장 탐방, 지역 순례를 추진하며 청년 유권자들을 겨냥.

“젊은 정치포럼”도 결성키로 했다.

또한 진보진영 원로를 중심으로 구성된 ‘민주평화국민회의’도 13일 창립대회를 갖고 이들 시민사회세력을 외곽지원할 예정이며, 시민사회세력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잠재적 대권후보인 문국현 유한길빌리 사장이 당장 창당작업의 전면에 나서지는 않되 조만간 정치참여 결심을 굳힐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전남 참여정부 평가포럼 공식 발족

13일 창립대회...이병완씨 강연

광주·전남 참여정부 평가포럼(이하 창평포럼)이 13일 오후 7시 광주시 여성발전센터 대강당에서 50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갖고 공식 발족한다.

이날 광주·전남 창평포럼 창립대회에서는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 서대석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이명자 광주시의원 등 5명이 공동대표로 선정될 예정이며 실무진으로 운영위원회의와 사무처를 두게 된다.

이날 창립대회에 이어 창평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정치개혁의 성과’를 주제로 한 공개강연을 있을 예정이다.

SASA & 톰과제리의 새로운 이름 "SASA" 아이들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도약해가는 새로운 SASA의 모습을 기대해주세요.

최고의 A/S
아동가구 13년! 아동학생가구 시장의 자존심을 세워드립니다. 신속한 정보: 제품 배송과 동시에 고객님의 정보를 전산화하여 A/S신청 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처리: SASA 만이 SASA 가구를 A/S할 수 있으며, 수리하는 시간도 단축됩니다. 저렴한 비용: 제품 결함시 1년간 무상A/S, 이후에도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중 불편한 점이 생기면 A/S센터에 연락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A/S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최고의 Design
프린세스 원목 시리즈 출시
프린세스 원목시리즈는 미송 원목을 사용한 친환경 제품입니다. 가볍고 미려한 목리(나무결)를 가지고 있으며, 집성목으로 가공했기에, 웅이, 뒤통림이 없습니다. 사이즈가 넉넉해 어린자녀라면 부모님과 함께 잘 수 있으며, 중고생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국 A/S센터 대표번호: 1588-4434
홈페이지 www.sasakid.co.kr

일본 직수입 구제 전문샵 (토·소매)

● 도쿄쥬스 남·녀 의류, 신발, 가방 외 각종 소품 다양하게 구비

- ① 호점 : 금남지하상가 0동8호(지하철 구도청역 입구) 062)227-5355
- ② 호점 : 광주세무서 정문 맞은편(밀리오레 옆) 062)233-5355
- ④ 호점 : 두암동 시외버스터미널 옆 062)265-5355

● 광주 최초 일본 구제 샵터닝
● 당신의 패션이 시작되는 곳
● 기성품은 변화 개성연출
● Nippon Style

● 허상의 품격
● 부담없는 가격
● 편안한 쇼핑

● 리틀도코 아동구제·캐릭터전문(의류, 신발, 가방, 우산, 실내화 등 다량구비)
금남지하상가 0동9호(지하철 구도청역 입구) 062)228-1130

스파이더맨 파워레인저 유겐도 프린세스 슈기론

도쿄쥬스 · 리틀도코 아름다운 당신, 오늘 꼭 한번 찾아주세요!!